

이슬람혐오(Islamophobia) 원인에 대한 소고: 서술적 다원주의 관점에서 평화를 지향하며

강상우 사회복지 CoramDeo

논문 요약

본고는 서술적 다원주의 관점에서 종교 간의 평화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이슬람혐오(Islamophobia) 원인에 대해 소고(小考)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슬람혐오의 주요 원인을 본고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현실적 인식의 부족에서 찾았다.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세속국가에서 이슬람 신정국가(神政政治)를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꾸란』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의지(意志/精神, Allah's Will)를 추구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이슬람의 절대자인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에 대한 신격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함마드에 대한 신격화는 알라의 계전인 『꾸란(Qur'an)』보다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Haith)」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강화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이다.

주제어: 서술적 다원주의 관점(the Perspective of Descriptive Pluralism). 이슬람혐오(Islamophobia). 이슬람(Islam). 꾸란(Qur'an). 하디스(Hadith).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의 신격화(The Deification of Muhammad, the Human Prophet of Allah)

I. 들어가는 말

혐오(Phobia, $\Phi\acute{o}\beta\iota\alpha$).¹⁾ 본고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혐오(嫌惡, phobia)는 이슬람만의 얘기가 아니다. 반종교적 분위기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기독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e.g. Christianophobia, Religiophobia). 기독교의 경우 이 사회에서 혐오의 주체 이면서 동시에 대상이 되는 이중적 위치(加害-被害 複合者, Perpetrator-victim complex/duality)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양정호, 2022 참조)²⁾. 입에 담기에 조금은 그렇지만, ‘개독교’와 ‘먹사’로 대변되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세평(世評)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반종교적 분위기는 다른 종교들보다도 기독교에 더 심하다. 반종교적 성격을 지닌 전투적 신무신론자(militant Atheists)의 경우 그들의 삶의 기반이 유대-기독교 전통(Judeo-Christian tradition)에 있기에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신무신론자들의 저서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 내용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내용에 있어도 디테일(Detail)한-때로는 일부 잘못된 내용도 있지만-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신무신론자들과 같은 안티(Anti)기독교들에 대한 기독교의 비난은 그 비난의 진위여부(眞僞與否)를 떠나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상대적으로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못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슬람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슬람은 안티(反) 이슬람과 전투적 신무신론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슬람은 불모(不毛)의 무지 영역이기 때문에 분량이나 깊이의 정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비난의 강도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무신론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비난은 얕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면서 두루뭇술한 편이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소셜미디어(SNS)나 유튜브(YouTube), 그리고 대중매체(Mass Media) 등으로 이슬람과 관련된 (때로는 확인되지도 않은) 매우 극단적인 정보 등을 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가 이슬람과 관련된 극단적인 사건에 ‘필(feel)이 강하게 쏠린’ 가운데 그런 극단적 내용의 정보만을 추구-조회 수를 만을 의식하는-하여서인지 몰라도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접함으로 인해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슬람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부정적 이해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게 되고

1) “phobos,”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ekw000125324>;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보스(Phobos, $\Phi\acute{o}\beta\omicron\varsigma$)는 전쟁의 공포를 의인화한 신으로, 전쟁의 신인 아레스(Ares, Ἄρης)의 아들로 테이모스(Deimos, $\Delta\epsilon\acute{\iota}\mu\omicron\varsigma$)와 쌍둥이다. 공포의 신(Phobos)에서 파생한 단어가 혐오(phobia)라고 한다.

2) 양정호 (2022). “기독교혐오와 탈기독교현상에 대한 고찰: 오리게네스의 ‘철학’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 105. 239-262 참조.

이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의 증가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다(批判⇒ 反對⇒ 嫌惡, From criticism to antagonism to hatred). 샤리아(Shari'a)라고 하는 이슬람법(Islamic Law)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이슬람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샤리아와는 무관한 이슬람 세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할 경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대인 눈으로는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들의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종교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분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할 수 있으나(이는 중세 유럽의 기독교국가 Christendom에 대한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기에), 중세(中世)하고는 거리가 먼 현대에서 이슬람이 다수가 아니고, 또 샤리아에 대한 규정도 없는 비이슬람 세계에서 이러한 규정을 주장하거나 실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슬람 측에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의 증가만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 즉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를 가져오게 하는 자생적 원인(自生的 要因)에 대해서 논구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슬람 세계를 제외한 세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및 연구범위 그리고 관점 밝히기와 연구한계

연구문제. 본고를 통해서 비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혐오가 발생하는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잡아 보았다. 연구문제 1: [세속국가라는 현실] 비이슬람 세계에서 신정국가를 성취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알라와 꾸란] 알라의 계전인 꾸란의 해석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연구문제 3: [무함마드의 신성화] 알라의 인간 사도인 무함마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범위.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서는 비무슬림 세계는 정교분리의 세속국가라는 점에서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가르침인 꾸란의 가르침에 근거한 이슬람의 신정정치(神·政 政治)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정교분리(政·教 分離)의 세속국가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으로서 비무슬림의 가치와 충돌하는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세속국가의 비무슬림들로부터 이슬람혐오를 양산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³⁾ 연구문제 2에서는 꾸란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

3) 참고로 마그누스 브레히트켄(Magnus Brechtken)은 자신의 책에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정교분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자유를 위한 질서를 파괴한다고 적고 있다. “5.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고자 한다. 꾸란이 규정하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현재에 적용할 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기에 평화의 절대자인 알라의 정신을 무시[誤認]한 가운데 문자적 해석과 그를 통해 적용은 오해(誤解·曲解)와 오용(誤用·濫用)을 낳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오행(誤行·過行)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비무슬림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사건과 사고들은 이슬람의 절대자인 알라의 정신과 의지를 무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연구문제 3에서는 비이슬람 세계, 특히 유럽과 같은 서방 국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테러에는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에 대한 신성화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무함마드에 대한 신성화는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의 계전인 꾸란이 무함마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무함마드의 지위를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 제자리에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함마드는 꾸란의 가르침 그대로 알라의 인간 예언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관점 밝히기와 연구한계. 본고는 부제에서 밝힌 것처럼 서술적(敘述的)/기술적 다원주의 관점(記述的 多元主義觀點)을 취한다(강영안, 2009: 18-19).⁴⁾ 말 그대로 이슬람이 다른 종교들과 공존하는 현실에서 구원과는 별개의 이웃하는 하나의 종교로 바라보고자 한다. 혐오의 문제는 단지 이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속국가에 있는 한국의 극단적 보수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반면교사 차원에서 이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이슬람혐오의 원인에 대한 재고를 통해 오늘날 일부에 있는 기독교혐오(Christianophobia/Anti-Christian sentiment)의 원인을 어느 정도 직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종교 간에 판박이 décalcomanie처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한 몇 가지 한계를 지님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이슬람혐오의 원인을 서술적으로 고찰한 개념적 연구로서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슬람에 대한 논의는 특정 해석적 관점에 기반한 분석으로서 이슬람 전체에 대한 보편적 설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셋째, 『꾸

자유를 위한 질서를 파괴한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행동의 근간이 되기에는 부적당하다.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역사적 배움의 산물이다.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 교육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Brechtken, 2024: 18-19, “현재를 위한 역사의 10가지 가르침” 16-22 참조); “정교분리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명확히 구별하고 믿음에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적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고안되었다.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 덕분에, 증명되고 경험될 수 있는 지식이 공공교육에서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Jouary, 2024: 23)

4) 서술적 다원주의(敘述的多元主義, Descriptive Pluralism)란 실제로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 도덕, 문화,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지 사실을 기술(describe)하는 관점이다. 규범적 다원주의(規範的多元主義, normative pluralism)와는 다른 개념이다.

란』과 「하디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신학적·법학적 전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본고는 한계를 지니는데, 무엇보다도 이슬람에 대한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슬람 전문가들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인용과 재인용 그리고 본고의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더 나아가서 본고의 일부 내용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상대적 신성화는 강상우(2021)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II 비(非)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혐오 증가의 원인

1. 비이슬람 세계가 세속사회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 결여

…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은 관념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장소다(Mallach, 2024: 433)

1) 세속국가에서 정교일치 추구, 샤리아(Sharia, Islamic Law) 실천 추구 욕망과 그로 인한 비이슬람 세계와의 충돌: 이슬람은 이슬람(종교)과 정치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무슬림에게 이슬람은 곧 종교이자 국가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꾸란의 가르침을 정치 속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황태연 등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단순히 신앙 체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슬람은 단순한 신앙체계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이 합일된 생활양식이며, 인간사의 전체를 주도하는 실천적 신앙체계이고, 종교적 믿음과 인간의 가치관, 양자가 직결(直結)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슬람 고유의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황태연, 2017: 27, ‘합일된 실천적 신앙체계’, 26-28; 손주영, 2005: 31, “이슬람은 신앙체계만이 아니다.” 31-41; Madden, 2010: 27; Isak and Rosenthal, 1969: 23. 참조).⁵⁾

5) “결론적으로 무슬림 세계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정신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중(二種) 검(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이자 국가’라는 이슬람의 전통적 정교일치원리들이 『꾸란』에 명시되어 있고 예언자도, 그의 후계자들(Khulafaul-Rashidin, 정통 칼리파들)도 이 원리들을 국가 통치에 실제로 적용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손주영, 2005: 45); “마호메트는 정치와 종교를 모두 관장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신앙인 동시에 통치 형태이기도 했다. 상업과 사법, 외교, 전쟁은 종교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Madden, 2010: 27); Isak Erwin and Jakob Rosenthal (1969). *Political Thought in Medieval Isl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고.

이슬람은 제정일치(祭政一致)/정교일치를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텍스트를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경우 그들의 절대자 알라의 가르침인 꾸란을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알라의 계전인 꾸란에 근거한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 Islamic Law)를 가지게 된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 속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이슬람 세계에 속한 나라들의 세속화의 정도에 따라 꾸란에 근거한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정도는 다르지만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슬람 세계의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신정국가를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경우 이슬람법을 보면 꾸란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 가(家)와 원리주의적 성격을 지닌 와하비즘(Wahhabism)으로 형성된 일종의 샤리아에 기반한 이슬람 절대군주제(Sharia-Based Islamic Absolute Monarchy)를 추구하기 때문에 샤리아 적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시아파에 속하는 이란의 경우 이슬람 혁명 이후 율라야트 알-파키흐(Wilayat al-Faqih, Governance of the Jurisprudent), 즉 이슬람 법학자들에 의한 통치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⁶⁾ 이란의 경우도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용을 한다. 그러한 이유로 임병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샤리아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고전적 샤리아체계'를 택한 나라로 구분하기도 한다(임병필, 2016: 72)⁷⁾ 참고로 고전적 샤리아체계에 속한 이들 두 국가에서는 절도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꾸란은 절도죄(사리카, sariqa)에 대해 무엇이냐 규정하는가.

38. 물건을 훔친 남녀의 손을 자르라 이것은 두 손이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요. 본보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니라(꾸란 5:38).⁸⁾

6)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데, 이란 사람들은 이란 이슬람 혁명(Iranian Revolution of 1979) 이전과 이후 어느 때를 더 그리워할까? 1979년 이전 세속국가를 그리워할까? 1979 이후 신정국가체제를 더 좋아할까?

7) "현대 아랍의 형법은 샤리아의 반영과 적용 정도에 따라 고전적 샤리아체계, 세속적 체계, 혼합 체계로 분류된다. 샤리아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전적 샤리아 체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고, 샤리아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속적 체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이며, 나머지 중동 국가들은 '혼합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Application of sharia law by country")"(임병필, 2016: 72).

8) <https://www.koreaislam.org/성꾸란/?pageid=11&uid=1351&mod=document>; 꾸란 5장 38절에 주석 50)을 다음과 같이 붙이고 있다. "50) 일반교회 법률가들은 물건을 훔친 죄인에 대한 벌로써 손목을 자른다는데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범죄 경우는 이 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한편 초범일 경우는 한쪽 손만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이것은 다음에 의거한 것이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마태복음 18장 8절). 한편 예수 시절에는 삽자가에 못을 박혀 형을 받았다."

절도죄에 대해서 꾸란은 ‘남녀의 손을 자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법에 따르면 절도죄는 후두드 형(hudud, 固定刑, 단수형은 hadd)에 속하는 범죄다. 이란 이슬람 형법 제201조에 따르면, 절도가 반복될 경우 단계별 엄중한 법정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⁹⁾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반복적인 절도는 오른손의 절단에 처벌될 수 있고 손과 발의 교차 절단에 의한 가중(加重) 처벌도 될 수 있다. 다만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단 한 건의 사법 절단 사례가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¹⁰⁾ 인권을 위한 워싱턴 센터(Washington Center for Human Right)의 “사우디아라비아, 새로운 형법 도입: 앞으로의 도전 과제 탐구(Saudi Arabia introduces new penal code: Exploring challenges Ahead)”라는 글에 따르면, “절도와 간통에 대해서는 태형(whipping)과 손 절단(hand amputation)과 같은 신체적 형벌도 기대가 된다(Physical penalties like whippings and hand amputations are also anticipated for theft and adultery.)”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¹⁾

또한 인터넷이나 뉴스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샤리아에 근거한 처벌로는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 북부에 위치하는 아체주(Provinsi Aceh)에서 공개적으로 샤리아 규정(Qanun Jinayat, 아체 이슬람 형법)에 근거한 처벌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랍-중동-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샤리아의 공개 적용은 더욱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며, 우리가 사는 비아랍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면 혹시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샤리아가 적용되는 것 아닌지-하는 두려움을 더욱 자아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참고로 아체주는 절도죄에 대해서 꾸란의 규정에 따른 절단형(hadd)으로는 실행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태형(caning), 벌금형, 징역형 등의 재량형(ta'zir, 타 지르) 처벌로 처리되는 것 같다.¹²⁾

아랍-중동-지역을 포함한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이슬람 세계에서의 정교일치/신정국가의 원칙에 근거한 샤리아(이슬람법)의 규정과 그 적용은 현대인들에게 이슬람을 부정적인

9) <https://iranhrdc.org/islamic-penal-code-of-the-islamic-republic-of-iran-book-one-book-two>.

10) https://en.wikipedia.org/wiki/Legal_system_of_Saudi_Arabia.

11)

<https://www.washingtoncentre.org/saudi-arabia-introduces-new-penal-code-exploring-challenges-ahead>; “Saudi Arabia introduces new penal code: Exploring challenges Ahead” Washington Center for Human Right. (March 29, 2024).

12) <https://www.benarnews.org/english/news/indonesian/Aceh-Qanun-10222015171653.html>; Nurdin Hasan, “Sharia Criminal Code Expands in Aceh”. Benar News. (October 22, 2015); https://en.wikipedia.org/wiki/Islamic_criminal_law_in_Aceh

시야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뉴스나 소셜미디어(SNS)가 가지고 있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의 추구와 에코챔버효과(Echo Chamber Effect, 일종의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과 연관되어 Filter Bubble, Algorithmic Bias, Confirmation Bias 등을 생산하게 되는 역할) 등으로 인해 현실과 거리가 먼 부정적인 정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슬람 세계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정적인 평가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이슬람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즉 신체 절단형 또는 채찍형과 같은 샤리아의 적용된 사례로 인해서 다양한 이슬람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무너져 내리고 ‘이슬람 세계=신체 절단이나 채찍형’이라는 부정적 환원주의적 시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곧 혐오로 나아가는 문을 열게 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2) 신정국가 실현이라는 유토피아(Utopia)적 이상, 그러나 현실은 단지 우토피아(οὐτὸ πῖα)에 불과함: 정교일치, 즉 신정국가는 현실에서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Utopia)는 유토피아(εὐτὸ πῖα, eutopia=εὖ+τόπος [Good+place])가 아닌 우토피아(οὐτὸ πῖα, outopia=οὐ+τόπος [No/not+place])에 불과한 것처럼 이상적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신정국가는 현실에서 실현(實現)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유토피아는 좋은 곳 즉 이상향인 곳(Good place, ideal place)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No place, a place that does not exist)에 불과하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유토피아처럼 이론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정치/통치 형태일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신정국가라는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꾸란의 가르침에 근거한 신정정치를 나름 추구하는 형태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라. 신정국가에 가까운 그들 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진정으로 절대자 알라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일례로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받고 차별을 받거나, 또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히잡(Hijab) 즉 베일(Veil)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이들 이슬람 세계의 모습을 과연 이슬람의 절대자인 알라의 계전인 꾸란에 근거한 통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신의 의지에 따른 정치 형태 즉 통치 형태를 그 무엇이라고 명명-알-후크무 알-일라히(al-ḥukmu al-ilāhī=Divine rule, 神의 統治), 율라야트 알-파키흐(Wilāyat al-Faqih=

13) “이슬람 국가들은 세속군주의 권력과 알라(하느님)의 다스림이 하나라는 신정정치를 표방한다. 알라(하느님)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준 종교적 가르침이 곧 통치이념이고, 종교적 계명이 법이다. 신의 계시를 기록한 꾸란이 계전임과 동시에 이슬람법이 되었다.”(이봉석, 2023: 395)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 이슬람 法學者 統治原理)-하기 이전에 통치 형태를 이끌어가는 정치인 개개인에게 어떠한 흠결도 없는 것일까? 각 개인이 모인 집단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무오(無誤)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꾸란의 가르침은 무오하고 흠결이 없다고 전제(前提)하더라도, 그를 삶 속에서 적용하는 인간 통치자들은 현실에서 흠결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¹⁴⁾ 이론적으로 이슬람이 주장하는 꾸란의 무흠결성(無欠缺性)과 무관하게 정치가들과 통치가 개개인의 흠결과 도덕적 결함과 더불어 그들의 집단은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종교인-고위직 종교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란의 법학자들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신정국가에서도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점이다. 절대자 알라의 계전인 꾸란의 해석에 있어서 통치자 간 일치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특히 이슬람학자(무프티, Mufti, 복수형은 Muftūn)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법적 견해인 파트와(fatwa, 복수형은 fatawa)의 경우 꾸란의 정신과 일치하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눈에도 믿기지 않는 내용이 아무런 반대 없이 파트와로 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슬람학자인 무프티에 의해서 행해지는 파트와의 효력 범주를 이슬람 세계를 넘어 비이슬람 세계, 즉 서구 사회와 비이슬람의 세속국가로 넓혀서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비이슬람 세계의 관점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비이슬람 세계에서는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용인하기가 어려운-파트와, 단지 종교적 수사로 덧칠해진 파트와와 종교지도자라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파트와에 대해서 비이슬람 세계의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88년 살만 루슈디(Salman Rushdie)의 소설 『악마의 시(The Satanic Verses)』가 선지자 무함마드(Muhammad)와 관련해서 신성모독(blasphemy)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저자와 출판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인이 된 이란의 대아야톨라(Grand Ayatollah, Āyatollah al-ʿUẓma)인 루홀라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가 ‘사형 파트와’를 내린 경우다. 비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인가? 서구에 사는 한 사람이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 소설의 내용에 신성모독(神性冒瀆, ḍidd al-islām wa al-nabī wa al-qurʾān/Against Islam, the Prophet, and the Qurʾān)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종교지도자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종교를 신앙하는 이들에게 명령한다. 저 책을 쓴 사람을 죽여라. 저자인 루슈디는 국적이 이란인이 아닌 영국계 미국인 작가(the British American writer)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나 번역하

14) 니버(Reinhold Niebuhr)의 책 제목인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오마주(hommage)하자면, 현실의 평가는 Immoral Man and Even More Immoral Society인 것이다.

는 사람들도 죽여라는 식의 파트와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란도 아닌, 그렇다고 해도 아랍 세계도 아닌 서방을 비롯한 비이슬람 세계를 향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거기에 응답하여 사람을 죽이면 물질적인 보상을 한다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파트와를 내린 종교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사망하기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호메이니가 선포한 파트와는 철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면 어떤 생각을 들겠느냐는 점이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종교지도자(알리 하메네이, Ayatollah Sayyid Ali Khamenei)가 나서서 과거 호메이니가 선포한 파트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한다면 비이슬람 세계에서 거주한 사람들에게 눈에 이들의 종교인 이슬람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이 말하는 절대자 알라와 그들의 외치는 평화(Salam)가 어떻게 평가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이슬람에 대한 평가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리가 없을 것이며 이는 곧 혐오로 쉽게 경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3) 정교분리의 세속국가에서 신정정치 추구로 인한 갈등은 혐오로 비침

신권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인이 사법에까지 개입하는 데 있다(Shiono, 2019: 286)

(1) 세속국가에 사는 일반인들에게: 특히 세속국가에 속하는 비이슬람 세계 시민의 경우 종교적 가르침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속국가에서는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無敎),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야를 지닌 이들이(戰鬪的無神論者) 존재하는데, 종교를 가지는 이들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갈등과 혐오를 생산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슬람의 경우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Allah)의 계전, 『꾸란』의 내용을 보면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Lā ikrahā fī ad-dīn, There is no compulsion in religion.)라고 ‘종교의 자유’를 규정(꾸 2:256)하고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다.”(Lakum dīnukum wa liya dīn, To you your religion, and to me mine.)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간의 공존’에 대해서 규정(꾸 109:6)하고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믿고자 하는 자는 믿고, 믿지 않으려는 자는 믿지 말라.”(Fa-man shā'a falyu'min wa-man shā'a falyakfur, So whoever wills—let him believe; and whoever wills—let him disbelieve¹⁵⁾)는

15) <https://quranpwa.com/en/surah/18/al-ka-hf/ayah/29>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신앙 선택’을 규정(꾸 18:29)¹⁶⁾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속국가에서 알라의 정신/Will을 벗어난 것을 주장하거나 강요한다면 세속국가의 일반인들에게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비이슬람 세계에서 그 세계의 시민으로 사는 무슬림에게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세속법/실정법이 아닌, 샤리아 규정의 준수와 더불어 샤리아의 규정에 위배했다는 이유로 자력 구제/사적 구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그것이 종교적 수사로만 끝났든, 아니면 적극적인 테러와 같은 행위로 드러났든—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혐오의 시각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진정한 신정국가의 완성은 종말 때. “34. 종말의 시각은 알라만이 아시니라 ….”(꾸 31:34, Inna Allāha ‘indahu ‘ilmu as-sā‘ah, “Indeed, Allah [alone] has knowledge of the Hour.” <Sahih International>)¹⁷⁾ 꾸란의 이 구절은 마지막 시각(終末, Qiyāmah)의 지식은 오직 알라께만 있다는 의미다. 모든 것이 절대자 알라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진정한 신정국가는 실현은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해서 마지막 시각 때까지 신정국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between already and not yet)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⁸⁾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나라가 완성/成就될 때까지는, 즉 마지막 시각(時刻)까지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종교인들은 그 누구이든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자신들이 믿는 절대자의 가르침이니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인, 심지어 종교지도자나 종교법학자들도 종교의 이상적 가르침을 구현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종말 때까지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치 완벽한 신정을 추구한다거나 완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면 허울뿐

16) <https://www.koreaislam.org/성꾸란/?pageid=10&uid=1640&mod=document>; 한국이슬람교의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29. 일러 가로되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렀으니 원하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자 불신토록 두라 실로 나는 그 불신자들을 위하여 연기와 화염이 에워싸는 불지옥을 준비하여 두었노라 또한 저들이 물을 구하나 납과 같은 황동 물이 저들의 얼굴에 부어질 것이니 그들의 음료수와 거주지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꾸 18:29)

17) <https://www.quranv.com/en/31/34/>

18)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에는 현재적 요소와 미래적 요소가 결합하여 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현존한다. 그러면서도 아직 모두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다려야 한다. 이미 경험한 것이지만 아직 희망해야 할 목표이다.’”(임재혁, 2010: 16)

인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수사(Rhetoric)에 불과한 현실성이 크게 결여된 이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땅에서는 신정국가의 완성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특정 도시를 자신들의 절대자/神에게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성시화(聖市化)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자신과 동일한 종교를 지닌 이들을 이 나라의 지도자(大統領이나 國會議員 등)나 지역의 지도자(市長, 郡守나 教育監 등)로 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보장할 수도 없고,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이론이나 일시적인 수사로 립서비스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세속국가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종교인과 심지어 무교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 대해서 전투적인 태세를 보이는 무신론자들로도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¹⁹⁾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지 못하는 주장이나 행동은 갈등을 넘어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속국가에서 종교 텍스트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하자면, 종교 텍스트에 대한 가르침은 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에게만 (일차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적용에 있어서 개개 종교인의 자발적인 수용에 의한 것이지, 그 어떠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슬람 세계가 꾸란에 기초한 샤리아(이슬람법)에 기초한 통치를 원한다면 그보다 앞서서 세속국가인 비이슬람 세계의 시민들에 의해 제정된 세속법에 근거한 세속국가의 통치를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2. 『꾸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절대자 알라의 뜻에 대한 무지와 의식적 거부

1)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뜻은 말할 것 없이 살람(Salam) 추구: 비이슬람권에서 이슬람 혐오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비이슬람 세계가 세속국가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논구했다. 두 번째로 비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혐오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계전인 『꾸란』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의지(意志, Wil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절대자 알라의 뜻이 살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꾸란에 나오는 지하드(Jihad)와 그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꾸란에 대한 해석과 꾸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오해(誤解)와 오용(誤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꾸란의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마치 꾸란이 폭력이나 전쟁을 정당화 해주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곧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19) 아브라함 카위퍼(Abraham Kuyper)가 말한 이 세상의 일 인치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교로, 절대자 알라는 평화와 거리가 먼 신으로 비춰지게 된다(참고로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해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근본적 속성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조금은 이분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슬람의 절대자이신 알라는 전쟁을 추구하시는가 아니면 평화를 추구하시는가다. 일반론적으로 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신의 속성이 무엇인가다. 신은 전쟁과 폭력이 아닌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신의 속성상 평화라는 점이다. 아니 평화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를 칭하는 명칭(asmā'u llāhi l-ḥusnā, Allah's Beautiful Names) 중 5번째 이름이 아살람(As-Salām, '평화 그 자체, 완전무결, 안전의 근원', 꾸 59:23).²⁰⁾·²¹⁾일 뿐만 아니라, 꾸란에서 알라는 믿는 자들을 '평화의 집(Dār as-Salām)'으로 부르신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성스러운 분이시며 **평화이시며** 안전을 보장하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절대적인 분이시며 불가항력을 가진 분이시며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시며 그들이 비유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라(꾸 59:23, "He is Allah ... the Source of Peace (As-Salām), the Giver of Faith, the Guardian ...")

25.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평화의 집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바른길로 안내하여 주시느니라(꾸 10:25, "And Allah invites 'all' to the Home of Peace and guides whoever He wills to the Straight Path." 강조는 본 연구자)²²⁾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덧붙이자면, 히브리성경(TaNaKh)/구약성경에서도 여호와(YHWH)를 평화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호와 샬롬(YHWH Shalom, יהוה שלום, "The LORD is Peace", 사 6:24), 즉 하나님은 평화인 것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평강의 왕'(Prince of Peace, שר שלום, Sar Shalom)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사 9:6 참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들의 찬양 내용에서 평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눅 2:24 참조) 히브리성경과 신약성경에 사용된 평화라는 단어, 즉 샬롬(שלום, Shalom)과 에이레네(eirēnē, εἰρήνη)의 경우 평화라는 의미가 단순히 '전쟁(戰爭)의 부재(不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Peace is not merely the

20) <https://allahuakbarofficial.com/as-salam-99-names-of-allah>; "The Most Perfect, The Source of Peace, The Giver of Blessings."

21) https://en.wikipedia.org/wiki/Names_of_God_in_Islam; "Names of God in Islam"

22) <https://quran.com/10/25>.

absence of war)는 것이다(김정우, 2015. “3. ‘샬롬’의 어휘-의미론적 연구”, 17-22; 신충훈, 2010 182 참조). 샬롬은 전쟁의 부재를 물론 매우 포괄적인 의미의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²³⁾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처라는 말 자체가 열반에 든 자를 말한다. 완전한 평화를 실현한 이가 바로 부처인 것이다(부처=평화). 바로 그 열반을 가르치신 것이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Dhammapada)』, 제14장 184절)²⁴⁾

2) 절대자 알라의 뜻을 무시한 극단적 이슬람의 지하드(Jihad) 이해: 어떤 종교 텍스트이든 텍스트는 속된 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텍스트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context)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당시 콘텍스트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승원, 2021: 2 참조).²⁵⁾ 특정 상황에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 텍스트의 내용을 마치 알라의 가르침의 본질(本質)이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따른 일시적/단회적이고 단기적인 내용을 절대적인 원칙이나 불변의 원리인 것처럼 이해할 경우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경우 콘텍스트 안에서 텍스트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성경의 해석과 관련해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의 지적도 비슷한 결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의 도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특정 본문에 집착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방식입니다.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일을 마주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성경 텍스트의 부분들을 전체적인 넓은 틀 안에 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오성민, 2023: 146-147; Wright, 2013: 134 참조)

지엽적인 특정한 부분에 집착하여 텍스트 내용에 대해서 변호할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

23) “예수의 평화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평화는 제자들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제자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연습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자체가 평화임을 알아야 한다(엡 2:14). 그는 자기 몸으로 갈라진 것들을 조화되게 하였다. 원수는 더 이상 폭력과 전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대신 십자가가 ‘원수’를 소명한다(엡 2:16) ‘원수’를 없애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것이다. (...)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그곳에 예수가 있다는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김학철, 2025: 99)

24) “停止造諸惡，培育眾善行，清淨自心意，此乃諸佛教”

25)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경 텍스트(text), 성경이 쓰였을 때의 콘텍스트(context), 그리고 성경 수용자의 콘텍스트(context),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이 쓰였을 때의 콘텍스트는 단지 그 당시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정승원, 2021: 2)

체에서 부분의 내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전(聖戰)으로 해석되어 자주 우리를 혼란에 빠트리는 지하드(Jihad)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지하드라는 단어가 성전(聖戰, holy war)이라는 이름으로 폭력 행사를 정당화해 주는 꾸란 구절로 인용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검은 두건으로 얼굴의 대부분 가리고 한 손에는 아랍어로 샤하다(Shahāda, Islamic declaration of faith)²⁶⁾가 쓰여진 검은 깃발을 다른 한 손에는 AK소총(AK rifle)을 든 이미지[그림 출처²⁷⁾]나 그러한 상태에서 매우 과격한 톤으로 아랍어로 무엇인가 외치는 무자히드(Mujāhid/ Mujahideen, Islamic Fighter)가 출현한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는 점이다. 무자히드가 외치는 아랍어 중에 알라(Allah)라는 이슬람 절대자의 이름이나 지하드(Jihad)라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익숙한 단어나 문장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이슬람=총을 든 전사=전쟁, 살인, 폭력, 아랍 전사=지하드/성전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자 알라의 계전인 『꾸란』은 지하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임병필(2019)은 지하드에 대해서 자신의 논문을 통해 분석하면서 동시에 앞서 발표된 서정민의 논문(2017)을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코란 구절들을 우리말로 정리해 본 결과 ‘지하드’를 ‘성전’, ‘자하다’를 ‘성전하다’, ‘무자히드’를 ‘무슬림 전사’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코란 구절들에 언급된 ‘지하드’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방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즉 코란에 언급된 지하드는 “무슬림 개인과 공동체(움마)를 위해 가치가 있는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것, 신념 혹은 종교적으로 알라의 길을 걷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 우상이나 악에 맞서 싸우는 것, 이슬람과 움마를 위해 노력하는 것, 불신자들을 개종시키는 것, 이슬람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서정민 2017, 5)과 같이 각 구절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임병필, 2019: 10).

한마디로 지하드나 지하드와 관련된 단어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26) The Shahada is the Islamic declaration of faith. It states: “There is no god but Allah, and Muhammad is the Messenger of Allah.”(Lā ilāha illā Allāh, Muḥammadun Rasūlu Allāh,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마둔 라술루 알라)

27) 깃발에 샤하다(Shahāda)가 적혀있다. https://search2.kakaocdn.net/argon/600x0_65_wr/9xVZQThICZk; لا اله الا الله محمد رسول الله (lā ilāha illā Allāh, Muḥammadun rasūlu Allāh,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예언자)이다.”)

것이다(임병필, 2019: 10; 서정민, 2017: 5-9, “II. 지하드 개념의 정치적 다면성” 참조). 절대자 알라의 계전인 꾸란을 보면 실제로 문자적으로 지하드라는 단어가 있고, 지하드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꾸란의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지하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말하는 폭력적 지하드를 선언하는 것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왜냐면 지하드라는 단어가 무력/폭력을 통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꾸란이 계시된 당시 제한된 상황(社會的 情況/政況)에서 선포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한다는 것에 심각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하드에 대해서 꾸란은 어떤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하드를 단지 성전(작은 지하드, the lesser jihad, al-jihād al-asghar)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하드에 대한 매우 빈약한 이해라는 지적이다. 지하드는 성전과 같이 무력 투쟁-이 경우에도 일종의 정당방위와 비슷한 방어적 성격의-을 의미하는 작은 지하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투쟁-자신의 욕망, 나태, 죄성(罪性), 악한 충동과 싸우는 영적 노력-을 의미하는 큰 지하드(The Great Jihad, al-jihād al-akbar)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꾸 25:52 참조) 더 중요한 것은 무력 투쟁을 의미하는 소(小)지하드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소 지하드의 경우에도 방어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도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인, 여성 등의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해(害)해서는 안 되며,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꾸란이 제시하고 있는 소지하드의 조건과 내용을 [표: 소지하드의 조건과 내용]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소지하드의 조건과 내용]

조건	내용	꾸란 구절
방어 목적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어로서의 전쟁 허용	(꾸란 22:39-40): 39. 침략하는 자들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나니 ⁸⁷⁾ 모든 잘못은 침략자들에게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니라 40.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한 것 하나로 부당하게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이 있노라 만일 하나님의 보호가 ⁸⁸⁾ 없었더라면 불신자들이 지배한 수도원도 교회들도 유대교 회당들도 하나님을 염원하는 성원들도 파괴되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진능하시니라. 87) 이 절이 성전(jihad)에 관하여 계시된 최초의 절이라고 이븐누 압바스는 전하고 있다. 88) 성전(jihad)에 관한 계시
지도자 승인	합법적 권위자에게 복종	(꾸란 4:59): 59.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도와 지도자들에게 ²⁶⁾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하나님과 사도에게 위탁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이 최선이요 보다 적절한 방법이니라. 26) 꾸란 원문의 아랍어 '울릴 아므르'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지도자들을 일컫는다.

민간인 보호	무고한 생명 금지	(꾸란 5:32): 32.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벌을 내렸나니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였다면 그것은 모든 인류를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제하는 것과 같다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나의 사도들이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으나 그 후에도 그들 중 많은 자들이 지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범하였느니라. ⁴⁵⁾ 45) 의로운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살해하였다.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큰 죄는 어떤 것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것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신을 믿는 행위, 살인, 불효, 위증이다.
최후의 수단	적이 평화를 원하면 반드시 수용	(꾸란 8:61): 61. 적이 평화를 원한다면 너희도 또한 평화를 추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이슬람의 절대자이신 알라의 뜻은 다름 아니라 살람, 즉 평화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알라를 평화의 근본이신 분(As-Salām, The Source of Peace)이라고 칭한다.²⁸⁾ 이슬람(Islām)의 어원은 살리마(salima)로 복종뿐만 아니라 평화를 의미하는 동사다.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절대자 알라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것으로 이는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Muslim)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슬림-유대인들이 샬롬(Shalom)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은 다음과 같이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한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아쓰살라무 알라이쿰, As-salāmu ‘alaykum, Peace be upon you)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와 알라이쿠무 쉐람, Wa ‘alaykumu s-salām, And peace be upon you, too)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가 추구하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 즉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알라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한 폭력적인 지하드에 대해서 주장함으로써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적 존재로 오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알라의 뜻을 무시한 삶, 꾸란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지하드에 대한 주장은 평화가 거리가 먼 종교가 되고 이는 곧 이슬람에 대한 혐오로 발전하도록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3)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hadith)에 대한 이해 부족

지하드에 대한 내용은 꾸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더 자주 나온다. 무슬림의 삶 속에서 알라의 계전인 꾸란이 헌법(憲法)이라고 한다면, 알라의 인간 사도인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는 법률(法律)이나 시행령(施行令)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현실에서 꾸란의 공백을 메꾸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디스라는 점이다.²⁹⁾ “이슬람국가의 법률은 코란을 근거로 만든다. 하지만 6,000개의 구절 중에서 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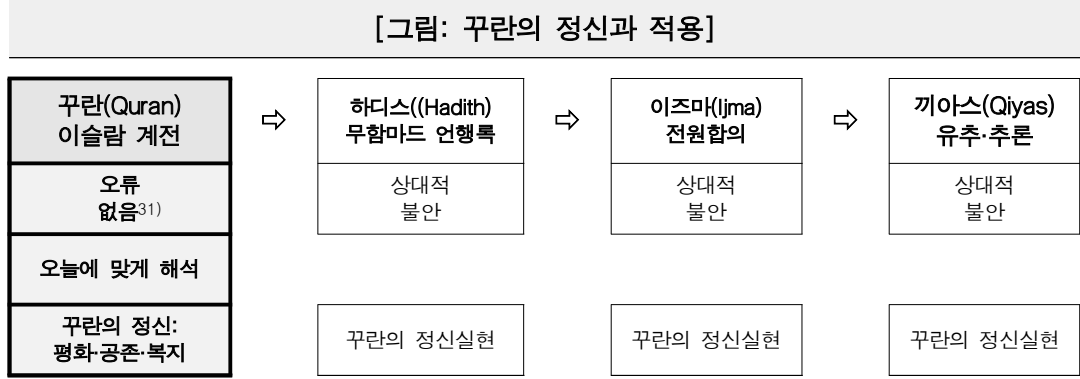
28) 그 외 평화와 관련된 알라의 이름으로는 Al-Ghafūr(The Most Forgiving), Ar-Rahmān(The Most Merciful), Al-Laṭīf(The Gentle, Subtle One) 등이 있다.

관련되는 것은 600구절이고 이 중에서도 범죄, 처벌, 계약, 가족법과 관계된 것은 80구절뿐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도 참고해야 한다. 일단 많은 공백을 메워주는 것은 하디스다.”(Brooks, 2011: 317) 헌법보다 법률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디스가 꾸란보다 실생활 속에서는 무슬림에게 더 가깝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디스에 나오는 지하드에 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슬람의 절대자인 알라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슬람은 평화가 거리가 먼 종교로 이해되고 이런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디스에 대해서 무슬림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였기에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증가하게 되었을까? (1) 하디스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특정 상황에 주어진 사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꾸란 텍스트의 이해에 대해서 재고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슬람 알라의 계전인 꾸란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컨텍스트(Con-text)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텍스트 자체는 컨텍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컨텍스트를 무시한 가운데 단지 텍스트의 내용만으로 텍스트가 가르쳐 준 내용에 대해서 절대시하는 것은 자제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알라의 인간 사도인 무함마드의 하디스(Prophetic Tradition)에 대한 이해는 어떠해야 할까?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의 하디스의 이해도 예외 없이 컨텍스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하디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狀況)과 정황(政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꾸란의 해석에 있어서 범하는 실수를 하디스를 이해하는데 동일하게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컨텍스트를 무시한 가운데 문자적/如字的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 하디스에

29) 박현도(2017a: 17-21)는 하디스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다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도 한다. “꾸르안인 무함마드 시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구체적 문맥을 제공하지 않고 암시만 하기 때문에 역사재구성이 어렵다. 따라서 꾸르안에 부재하는 문맥을 채워 넣어 의미 있는 역사를 기술하려면 하디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피터스(Peters)의 말마따나 꾸르안은 ‘문맥 없는 텍스트(a text without context)’다.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에서 꾸르안 구절에 맞는 문맥을 찾지 않으면 역사적 무함마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보를 좀처럼 재구성하기 힘들다. 이를 두고 나스르(Nasr)는 ‘하디스 없이 꾸르안 대부분은 닫힌 책’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디스 역시 꾸르안 텍스트와 대조하여 역사적 사실을 캐낼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료가 되지는 못한다. 무함마드 사후 150년이 지나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꾸르안과 독립적으로 전승되어 꾸르안 해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꾸르안 구절을 용이하게 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형성된 흔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꾸르안은 ‘문맥 없는 텍스트’이기에 꾸르안에 문맥을 제공하는 하디스에 의존해서 무함마드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꾸르안과 독립적으로 전승된 것이 아니라 꾸르안에 의존하여 해석의 일환으로 부차생성(副次生成) 되었다면 독립 사료로 신뢰하기 어렵다.”(박현도, 2017b: 33-34)

지하드에 대해서 이런 문장이 있지? 봤지! 그러니까 지하드는 가능한 것이야”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하드가 들어간 단어나 문장이 하디스에 서술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지하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2) 하디스의 해석이 꾸란의 가르침이나 이슬람의 절대자이신 알라의 의지(뜻)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의 법원(法源)은 다음과 같다. 꾸란(al-Quran,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계전)⇒ 하디스(al-Hadith, 알라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또는 언행인 as-Sunnah)⇒ 이즈마(al-Ijma, 전원합의)⇒ 끼아스(al-Qiyas, 유추추론)를 선택하고 있다(박현도, 2016: 633-634).³⁰⁾



자료: 강상우(2021: 105)

샤리아의 법원이 꾸란⇒ 하디스⇒ 이즈마⇒ 끼아스 순으로 위계(位階)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슬람에게 꾸란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신의 계시로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말씀으로, 모든 법과 도덕의 최종 판단 기준(判斷基準)이 된다는 의미다.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계시는 꾸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씀과 행위를 기술한

30) 끼야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음을 참고하라. “끼야스는 인간 행위에 대해 판단할 때 사용하는 법적 증거, 즉 샤리아의 법원들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끼야스가 샤리아의 네 번째 법원이라고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하나피, 말리키, 샤피이, 한발리 법학과(이상 순), 자이디 법학과(시아)가 끼야스를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학과마다 채택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번째 법원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순니의 다히리 법학과와 시아의 자오파리 법학과, 그리고 이바디 법학과는 끼야스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병필·김종도·안승훈·유왕중·김병호·이성수, 2018: 159-160).

31)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의 『계전(啓典)』에 대해서 무오류를 주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꾸란도 오류 없는 절대자의 계전일 것이다. 이는 어느 종교에나 예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서술적 다원주의 관점의 출발점이 아닐까?

것으로 꾸란의 내용을 보완하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이지만 하디스의 내용은 최종 기준인 꾸란의 내용을 절대로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즈마는 이슬람 학자들의 전원합의로, 꾸란과 하디스에 명시적 언급이 없는 문제에 대해 공동체의 의견 일치를 통한 법적 권위를 형성하지만, 알라의 계전인 꾸란과 더불어 알라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의 내용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추와 추론을 의미하는 끼아스의 경우도 꾸란과 하디스 더 나아가서 이즈마를 벗어난 해석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꾸란은 절대자 알라의 계시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종교가 어떤 것이든 자신의 경전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지만 하디스와 이즈미나 끼아스 등은 오류가 흠결 가능성이 있는 인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하디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디스의 성립 기간이 꾸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정통 6대 하디스집 완성³²⁾은 8세기 후반~10세기 초, 약 750년~915년경 사이(약 150년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 하디스는 무함마드에게서 직접적으로 들은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전승 고리(Isnād, Chain of transmission)가 매우 복잡한 것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기억력에 의존한 경우가 많이 있기에 그 하디스의 내용(Matn, Content of the hadith)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 지하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꾸란은 절대자 알라의 이름을 평화로 소개한다. 무엇보다 알라의 뜻을 따르는 이슬람은 알라의 뜻이며 그의 속성인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꾸란은 대지하드와 소지하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소지하드 이해의 경우 텍스트의 자구(字句)에 중심을 둔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 콘텍스트 상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³³⁾ 한 마디로 교리와 같은 이슬람의 본질(本質)로 단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시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주어진 것/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꾸란의 소지하드의 규정은 앞서 [표: 소지하드의 조건과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a) 방어 목적으로, (b) (공인받은) 지도자의 승인을 통해서, (c) 민간인에 대한 보호를 염려하는 가운데, (d) 최후의 수단 등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디스에 나타난 지하드 이해의 경우에도 먼저 당시 특수한 정황(情況/政

32)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6대 하디스 중 5개는 중앙아시아에서 완성되었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하디스 ① Imam Bukhari (부하라: 우즈베키스탄, 846년, 7563 이야기) ② Muslim b. al-Hajjaj (호라산 니사푸르: 이란 동북부, 875년, 7500 이야기) ③ al-Nasa'i (호라산 나사: 투르크메니스탄: 915년, 5270 이야기) ④ al-Tirmidhi (테르미즈: 우즈베키스탄 남부: 892년, 4400 이야기) ⑤ Abu Dawood (시스탄 Sistan: 아프칸 남서부: 888년, 5274 이야기)(공재영, 2024: 151, 22번 각주)

33) 다음을 참조하라. “신자가 경전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면 너무나 많은 난관과 모순에 부딪쳐 경전의 신성한 기원을 의심하게 된다.”(Jouary, 2024: 61)

況)에서의 알라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처럼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하디스가 절대 규범인 알라의 계전인 꾸란의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즈마와 끼아스의 경우에도 그들 법학자의 합의나 추론이 꾸란의 정신과 알라의 의지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참고로 하디스의 내용의 진실성 정도에 관한 등급을 [표: 하디스의 진실성 등급과 내용]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하디스의 진실성 등급과 내용]

명칭	의미	내용
사히흐 (Sahih)	건전한 (Authentic)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 모든 전승자가 신뢰 가능하며, 연결고리가 완전함. 부하리·무슬림의 하디스 대부분이 이에 속함.
하산 (Hasan)	좋은 (Good)	사히흐보다는 약간 낮지만 수용은 가능함. 전승자 신뢰도는 약간은 낮을 수 있음.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다이프 (Da'if)	약한 (Weak)	전승자 중 신뢰성 떨어지는 인물이 있거나 사슬이 끊긴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로 삼지 않음.
마우두 (Mawdu)	위조된 (Fabricated)	꾸며낸 하디스. 완전히 배척됨.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지하드는 어떤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알라의 이름으로 한 지하드가 되고 그러한 폭력적 행위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진정한 순교(샤히드 Shahīd가 되는 것, 순교행위 Istishhād)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꾸란이 말하는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길(꾸 3:169, Sabil Allāh, The Way of Allah)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행위를 실천한 자가 꾸란에서 말하는 순교자/들(Shahīd/Shuhad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슬람의 절대자인 알라의 길과 거리가 먼 일부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Radical Islamic fundamentalism, Political Islam)의 폭력적인 행위와 테러 행위를 지하드(聖戰, Holy war)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순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알라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장한다면 비이슬람 세계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지겠는가 하는 점이다. 비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에 대한 평가는 더욱 부정적인 악순환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하드의 성격을 폭력으로 이해하게 된 데에는 서구 학자나 서구 언론이 일정 부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서정민이 지적하듯이 지하드가 폭력적 성격을 지닌다는 담론을 서구 학자들이 주도하였고 이들 서구 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담론이 서구의 미디어와 정치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드=폭력/살인’이라는 환원주의적 도식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지하드의 폭력적 성격을 강조하는 학자가 주도하는 담론이 실제로 서구 미디어와 정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는 쿠란에서 성전은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1988, 2). 루이스에 따르면 고전적 이슬람 신학자, 법학자 및 전통주의자의 압도적인 다수는 지하드의 의무를 주로 군사적인 의미로 기술하였다. 역사학자 더글라스 스트로샌드(Douglas Streusand)는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에서 지하드는 무력을 의미한다”며 “하디스 중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히흐 알-부카리(Sahih al-Bukhari)에 등장하는 199건의 지하드 관련 이야기도 모두 전쟁을 가리킨다”고 분석했다(1997, 9-17)(서정민, 2017: 5-6).³⁴⁾

3.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에 대한 이해 부족

지금까지 세속국가에 속하는 비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는 이유로 (a) 세속국가에서 샤리아(Islamic Law)를 통한 이슬람 신정국가를 구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b) 또는 알라의 제전인 『꾸란』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알라의 의지를 추구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나머지 다른 하나로 알라의 인간 예언자인 무함마드(Muhammad)에 대한 오해(神聖化)로 인해 이슬람 혐오가 비이슬람 세계에서 증가하였음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무함마드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 일종의 무함마드에 대한 우상화/神格化를 의미한다.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라는 점을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 실생활에서 행동으로는 무함마드에 대해서 과도한 공경을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슬람 내부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이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에 대한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자 입장-본고의 입장이기도 하다-에서는 지나친 행동으로 인간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한 우상화 작업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특별하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유럽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의 일부 원인에는 알라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諷刺)-일명 Muhammad Cartoon Crisis로 알려진 것과 같은 풍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비이슬람 세계의 세속국가에 속하는 비이슬람 세계에서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가 곧 테러와 같은 폭력적 사태와 살인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무슬림들이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의 지위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의 예수에 대한 풍자와 비교해서 봐야 할 점인데, 예수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인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예수에 대한 풍자에 대해서 폭력과 같은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³⁵⁾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사도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로 인해 폭력이 발생한 곳은

34) Lewis, Bernard (1988). *The Political Language of Isla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reusand, Douglas E. (1997). “What Does Jihad Mean?”, *Middle East Quarterly*. 4(3). 9-17.

서·북유럽 나라들로 상대적으로 톨레랑스(tolerance, 寬容)를 강조하는 나라라는 점이다(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1) 비이슬람 세계에서 알라의 인간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와 극단적 폭력 대응(對應)³⁶⁾: 덴마크 신문사 질란드-포스텐(율란-스포스텐/ Jyllands-Posten)은 2005년 9월 30일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묘사한 12개의 사실 만화를 게재하였고, 그로 인해서



덴마크의 무슬림 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였고,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는 폭력과 폭동이 일어나는 등 전 세계에서 시위가 촉발됐다(Jyllands-Posten Muhammad cartoons controversy). 12개의 만화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상징적인 만화는 질란드-포스텐의 직원 만화가인 쿠르트 웨스터고르(Kurt Westergaard)가 그린 것인데, 그는 무함마드가 터번을 위해 지글지글 끓는 폭탄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다. 그 이후로 웨스터고르는 여러 차례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2010년 침입자가 도끼로 그의 뒷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후로 하루 24시간 무장 보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림 출처³⁷⁾는 다음과 같다]. 질란드-포스텐 무함마드 만평("The 12 Jyllands-Posten Muhammad Cartoons") 사건이 있고 그 2년 후, 2007년에 스웨덴 지역 신문인, 네리케스 알레한다(Nerikes Allehanda)에 라르스 빌크스(Lars Vilks)가 그린 그림을 실었다(Lars Vilks Muhammad drawings controversy). 그 그림(drawings)은 "예언자의 얼굴을 한 개"(예언자 무함마드의 머리를 가진 원형 교차로의 개 스케치)를 묘사한 것이다.³⁸⁾ [그림 출처.³⁹⁾는 다음과 같다.] 그로 인해 빌크스는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알-카에다는 그의 머리에 최대 10만 달러를 걸었다. 그 이후로 그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 2010년



35) 자신이 믿는 신이라든가 선지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존경하는 이들을 폄하(貶下)하는 것은 시민적 예의에서 매우 벗어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시민적 예의에서 벗어난 행위인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36) "유럽 내 반이슬람, 반무슬림 혐오의 다양한 형태 중 시사만평은 유럽과 무슬림 간에 가장 최악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재희, 2020: 141, "3. 이슬람포비아를 촉발한 만평". 141-142 참조)

37)

<https://en.wikipedia.org/wiki/File:Jyllands-Posten-pg3-article-in-Sept-30-2005-edition-of-Kultur-Weekend-entitled-Muhammeds-ansigt.png>; "Jyllands-Posten Muhammad cartoons controversy"

38) <https://www.wired.com/2012/09/muhammad-cartoon-controversy>; "10 Things You Didn't Know About the Original Muhammad Controversy"

39)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thumb/4/47/Muh-hund-original-rondelliten.JPG/250px-Muh-hund-original-rondelliten.JPG>; "Lars Vilks Muhammad drawings controversy"

에는 미국 시민이 빌크스를 암살을 모의하다 체포되었고(이른바 ‘Jihad Jane case’, 콜린 라 로즈, Colleen R. LaRose), 집에 화재 폭탄 공격을 시도하였다. 2021년 10월 3일, 그는 스웨덴 남부에서 경찰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 트럭과 정면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⁴⁰⁾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인 샤를 엡도(Charlie Hebdo) 테러 사건이다.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로 인해서 그들 또한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2015년에는 출판 책임자 샤브



(Charb, Stéphane Jean-Abel Michel Charbonnier)와 다른 화가들을 포함해서 12명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 테러 공격으로 인해 “Je suis Charlie”(쥬 쉬 샤를리, I am Charlie) 운동으로 이어졌다.⁴¹⁾ 샤를리 엡도는 옆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슬람뿐만이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풍자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슬람이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의 배치를 보면 유대교-가톨릭-이슬람으로 가운데에 가톨릭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출처⁴²⁾는 다음과 같다.] 샤를리 엡도 풍자만화는 2020년에 발생한 사뮈엘 빠띠(Samuel Paty) 살해 사건으로 연결된다. 교사인 파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민 교육수업(EMC: Enseignement Moral et Civique)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의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보여주었는데, 이 만화는 일부 무슬림에게 신성모독(blasphemy)으로 간주되었고, 한 학생의 부모가 이를 문제 삼아 소셜관계망(SNS)에 공개 비난을 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다(이 학생은 나중에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 수업에 결석했음에도 수업 내용을 부모에게 잘못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2020년 10월 16일, 프랑스 파리 교외에서 극단주의 테러범에 의해서 빠띠는 참수되어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프랑스 전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샤리아가 적용되지 않는 프랑스라는 세속국가에서 알라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풍자/卑下했다는 이유로 테러가 자행된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목도(目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다. 긍정적으로 이슬람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점은 확실할 것이다. 신이 아닌 알라의 인간 예언자를 풍자/비하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 칭하는 것이나,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살해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알라의 인간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한 신격화가 “혹시나”(Probably)하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40) <https://tass.com/emergencies/1345229>; “Author of Prophet Mohammad cartoon Lars Vilks dies in car crash in Sweden — report” (October 4, 2021)

41) https://en.wikipedia.org/wiki/Charlie_Hebdo.

42) https://search1.kakaocdn.net/argon/320x0_85_wr/9nkhDdg4WTL.

2) 이슬람 절대자 알라의 계전인 『꾸란』이 말하는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 그렇다면 계전인 꾸란은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특별한 지위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무함마드는 최후의 예언자(Khatam an-Nabiyyin, Final Prophet)가 된다. 즉 “... 하나님의 사도이며 예언자들의 마지막이다. ...”(꾸 33:40중반절) (b) 세계의 자비(Rahmatan lil-'Alamin, Mercy to all the worlds)로 묘사되기도 한다. “나는 다만 그대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서 보냈나니”(꾸 21:107) (c) 알라의 계시를 전달한 자(Rasūl Allāh, Messenger of God)가 되신다,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계시라”(꾸 53:4) (d) 모범이 되는 삶의 본보기(Uswatun Hasanah, A worthy role model)가 되신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 자이니라”(꾸 33:21) 이처럼 무함마드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란은 무함마드가 인간(육체를 가진 인간, Bashar, human being)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운명을 타고난 한 인간에 불과하니라.”(꾸 18:110상반절) 꾸란은 무함마드가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알라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또한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렇기에 예언자 무함마드를 신격화로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절대자 알라의 육체를 가진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상대적 신격화 경향(강상우, 2021 참조)⁴³⁾: 꾸란은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손주영 교수는 이슬람을 과거 서구에서 무함마드교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구에서 잘못 표현했던 영향으로 종종 이슬람을 마호메트(무함마드)교 Mohammedanism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신봉하지 않는다. 무함마드를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도 여기지 않는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계시받아 이 땅에 전한 신의 사자 使者로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이은 예언자일 뿐이다. 『꾸란』에서는 무함마드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님이 강조된다(손주영, 2007: 4).

그러나 현실에서는 알라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신격화(神性を追加)하는 경향을 보였다

43) 많은 부분을 강상우(2021)에서 인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 출처를 생략하였다.

는 점이다. 알라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니—다른 예언자들과의 차별화를 염두(念頭)에 두다 보니—신격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죽음과 동시에 발생한 것 같다. 왜냐하면 박양운은 무함마드의 부음이 전해질 당시 예언자 무함마드가 우상화될 뻔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의 우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라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었다는 사실을 제1대 정통 칼리프(Rashidun Caliphate)였던 아부 바크르(Abu Bakr al-Şiddiq, 아부 바크르 앓-시디크, ‘진실을 믿는 자’)가 선언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아부 바크르는 무함마드의 어린 아내 아이샤(Aisha bint Abi Bakr)의 아버지로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장인이기도 하다.

마호메트의 부음이 전해지자 이슬람 세계는 잠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마호메트의 동지이며 그의 강력한 지지자인 우마르(Umar ibn al-Khattab)는 마호메트의 죽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주님께로 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온건한 성격의 소유자인 아부 바크르(Abu Bakr: I Caliph)는 우마르의 과격한 주장을 가라앉힌 다음 마호메트의 우상화를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누가 마호메트를 공경하려 하지만 마호메트는 죽었다. 그러나 알라신은 불사불멸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마땅하다’[Ishaq, 1965: 683] 그리고 코란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무함마드는 다만 사도일 뿐이니라. 진실로 모든 사도들이 그보다 앞서 지나가 버렸노라.’(코3:145)(박양운, 1994: 74)

(1) 구별(distinction)이 **다름으로(difference)**.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슬람 절대자 알라의 계전인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특별한 지위를 지님과 동시에 그가 죽어야 할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예언자 무함마드의 입술을 통해 스스로 말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하나님의 사도이며 예언자들의 마지막이다. ...”(꾸 33:40중)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운명을 타고난 한 인간에 불과하니라.”(꾸 18:110상)

일부 무슬림의 경우 예언자 무함마드가 가진 특별한 지위로 인해서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다른 예언자들과의 구별을 강조하다 보니 (시쳇말로 도가 지나치다 보니) 마치 다른 예언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물로 이해하지/이해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한 구별의 필요성이 그를 넘어서(beyond) 질적으로 다름(qualitative difference, 일종의 The leap from quantitative difference to qualitative difference)으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 때문이다. 먼저 아래 [표: 이슬람 존칭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존칭 표현에 있어서 예언자 무함마

드에게는 구별된/특별한 표현이 붙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장후세인, 2014: 10 참조).

[표: 이슬람 존칭 표현]

대상	존칭 표현(아랍어와 약어)	의미
무함마드	ṣallā Allāhu ‘alayhi wa sallam (ASW) ⁴⁴⁾	그에게 평화와 축복을 (Peace and Blessings be Upon Him)
예언자들	‘alayhi as-salām (AS)	그에게 평화가 (Peace be Upon Him)
사하바 (동료들)	raḍīya Allāhu ‘anhu (RA)	그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May Allah be pleased with him)
학자와 성인(수피)	quddīsa sirruh (QS)	그의 영혼이 신성하게 되기를 (May his soul be sanctified)

이와 같은 구별은 중국의 이슬람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유지(劉智)와 왕대여(王岱與) 등과 같은 중국의 이슬람학자들은 성인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다른 성인들—이들은 중국의 이슬람 학자이기 때문에 공자와 같은 중국의 성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에 비해서 무함마드가 월등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는 공자는 열성(列聖)인데 비해서, 무함마드는 지성(至聖)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왕대여는 천사 지브릴(Jibril, 가브리엘)이 하나님 명령을 예언자들에게 전했는데, 지성(至聖)인 무함마드만이 명명(明命), 조명(兆命), 각명(覺命) 세 가지를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함마드를 다른 예언자들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정수일, 2003: 121 참조). 참고로 왕대여는 공자를 성인으로 간주하지만 알라의 명 중에 각명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⁴⁵⁾ 공자는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중국이슬람에서도 공자를 성인으로 인정한다. 劉智는 이슬람의 성인을 列聖, 欽聖, 大聖, 至聖의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 (...) 마지막으로 至聖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천경(天經) 30부를 받고서 이전 성인의 경전을 집대성해서 천하 만세의 표준으로 삼게 한 성인을 말하면서, 至聖은 무함마드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국이슬람 지식인은 공자를 꾸란에서의 롯이나 요셉과 같은 천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혜와 지식을 갖춘 성인이라 간주하고 열성의 행렬에 두고 있다.”(권상우, 2021: 400-401)

“중국무슬림 학자 王岱與는 천사가 至聖(무함마드)에게 전하는 알라의 명을 천명으로 해석하고, 이 천명을 明命, 兆命, 覺命으로 구분한다. (...) 王岱與는 무함마드만이 명명, 조명, 각명 이 세 가지 명령 모두를 갖추고 있을 뿐이며, 다른 예언자는 명명을 제외한 두 유형의 명을 가지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44) SAW(Sallallahu ‘alayhi wa sallam,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와 축복을 내리시길”라는 의미)는 무함마드 전용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PBUH(Peace Be Upon Him, 단수로 예언자에게)은 무함마드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문법상 단수 예언자에 대한 존칭 표현이기 때문이다.

45) 권상우는 참고문헌으로 王岱與, 『正教真釋』. 眞聖篇.; 劉智, 『天方至聖實錄』을 적고 있다.

명만을 얻은 예언자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의 성인 중에는 이 세 가지 명을 모두 받은 예언자는 없으며, 공자는 그중에서 각명만 얻어서 修身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공자를 성인으로 간주한다.”(권상우, 2021: 401-402)

(2) 다름이 존경(veneration)을 넘어 상대적 숭배로(worship). 최후의 알라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와 다른 예언자들과의 단순한 다름은 존경(尊敬)을 넘어 상대적인 숭배(崇拜)로 나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너무나도 존경하다 보니 시쳇말로 도/선을 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친 존경이 상대적 숭배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지.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지나친 존경은 무함마드의 닮기(Imitatio Muhammadi)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희선은 무함마드의 모방에 대해서 다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했다는 지적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극단적 모방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예언자의 생전부터 신자들은 그가 즐겨 입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목욕이나 세면 방법, 몸단장, 즐겨 먹는 음식, 성관계를 비롯한 부부 관계 등 그의 생활 관습 일례를 모방하려고 노력했다. 이븐 한발(Ahmad Ibn Hanbal)은 예언자가 생전 수박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수박을 먹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생 수박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조희선, 2015: 63; Swarup, 2002: 4 참조) 심지어는 무함마드에 대한 존경심은 그의 소변(小便)을 마시는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니 다르위시(Nonie Darwish)는 이집트 무프티인 알리 구마(Ali Gum'a)가 자신의 책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하들이 복을 받기 위해 예언자의 소변을 마셨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한다.

2007년 6월에 이집트 무프티(Mufti: 고위 무슬림 샤리아 학자) 알리 구마(Ali Gum'a) 박사는 『종교와 삶(Religion and Life-Modern Everyday Fatwas)』이라는 책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하들이 복 받기 위하여 그의 소변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언자의 부하들이 예언자의 소변과 땀과 침으로 자신들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제목의 파트와를 발표했다. 자신의 저서에서 알리 구마 박사는 하디스에서 소변을 마시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움 아이만(Umm Ayman)은 예언자의 소변을 마셨고 예언자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 위(stomach)는 지옥 불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인 알라의 사도의 물건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Gum'a, 2006: Darwish, 2014: 207)

(b) 지나친 존경심은 학자들 사이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신격화로 우려된 해석을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승천에 대한 꾸란의 내용이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1. 하나님의 종을 밤중에 하람 성원에서 아크사 성원으로 밤하늘 여행을 시켰노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이웃으로 하나님의 일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꾸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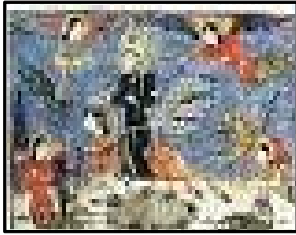
인용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원용국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부라크(Buraq)를 타고 천국을 방문한 사건(Isrā' wa al-Mi'raj/이스라 와 알-미이라지)에 대한 꾸란의 기록(꾸 17:1 참조)을 전설로 표현하고 있다.⁴⁶⁾ -를 포함하고 있는 원용국의 논문을 인용해 보자. “코란에 의하면, 예언자의 초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으나 후대 무하맛의 승천전설이 기록되었다(코란 17:1) 이것을 ‘메에라지’라 한다. 이로 인하여 모하맛이 신적이고 그들의 주로 승화되고 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과 유사하다.”(원용국, 2002: 21) 예언자 무함마드의 승천에 대한 꾸란은 기술은 이슬람의 알라의 기적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가 아니라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가 그 주인공인 것이다. 마치 구약성경의 엘리야의 승천의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니라 여호와(YHWH)인 것처럼 말이다(왕하 2:11 참조, “The Ascension of Elijah”). 그런데 문제는 무함마드의 승천에서 주인공이 전도(顛倒)되어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의 주연(主演/主人公)이 됨으로써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가 마치 신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게/오해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손주영이 소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디스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신성이 있는 존재로 비취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나는 민(min, 아랍어 알파벳 m) 없는 아흐마드(Ahmad, 여기서 m이 빠지면 Ahad인데, 이것은 하나라는 뜻이고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이고, 아인 'ayn(아랍어 알파벳 'a) 없는 아랍 'Arab(이겨서 'A가 빠지면 rab인데, 이것은 하나님[主]이라는 말이다)이다. 그러므로 나를 본 사람은 곧 진리(al-haqq, 하나님을 의미함)를 본 것이다.”(Nasr, 1972: 89; 손주영, 2005: 191 재인용)

손주영이 소개하는 내용은 매우 신비적인 해석으로 이 해석에 따르면 아랍어 철자의 변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인용문에서 “나”라는 인물은 진리/알라와의 본질적 일치성을 암시한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한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

46) 본고는 관점에서 밝힌 것처럼 서술적 다원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기에 예언자 무함마드의 승천을 단지 전설로 보는 것은 본고의 관점에서 벗어났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계전의 기술을 전설로 본다면, 성경이나 다른 경전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비이성적 기술도 모두 전설이 되고 말 것이다.

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이슬람에서는 관행상 예언자 무함마드의



얼굴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림]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이란, 오스만제국의 회화에서는 무함마드의 얼굴은 종종 불꽃이나 베일로 가려진 채 나타나는데, 이는 존경의 의미로 얼굴을 직접 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 출처⁴⁷⁾는 다음과 같다]. 캐롤 힐렌브런드(Carole Hillenbrand)

도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무슬림들은 예언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 심지어 무함마드의 생애를 다룬 고전 영화 『예언자 마호메트(The Message)』에서도 그의 얼굴은 한 번도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한다. 따라서 내용을 떠나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린 덴마크의 만평은 이미 무슬림의 금기를 깨뜨린 것이다.”(Hillenbrand, 2016: 52)

예언자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 그 자체를 우상숭배/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던 이희수의 견해에 대해서 이동주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희수는 「적대적 고정관념으로 왜곡된 서아시아-이슬람권」라는 논문 192쪽⁴⁸⁾에서 이슬람의 신개념을 ‘알라 신’이 아니라, ‘알라’라고 당연한 지적을 하였다. 그런데 그는 ‘신이나 예언자의 형상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신성시하는 것도 우상숭배로 여긴다’라고 하며, ‘알라의 형상을 그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무함마드는 신이 아님으로 무슬림이 그를 신성시하지 않는 것이 옳바르지 않은가? 이희수 교수의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릴 수 없다’라는 말은 무함마드를 신성시해야 된다는 말로 들린다. … 그러나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지 않는 바를 존중해 달라’라고 한다면, 이를 존중해 줄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이동주, 2017: 159-160, 강조는 본 연구자)⁴⁹⁾ 얼굴을 그리지 않는 것인데, 예언자 무함마드의 얼굴

47)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b/Muhammad_15.jpg/120px-Muhammad_15.jpg

48) 이희수가 적고 있는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함마드 초상화 게재 또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금기시한다. 신이나 예언자의 형상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신성시하는 것도 우상 숭배로 여긴다. 따라서 예언자인 무함마드(마호메트)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다. 2006년 덴마크의 한 신문이 무함마드의 초상을 악의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실어 전 세계 무슬림의 격렬한 항의를 유발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 문제가 이슬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이희수, 2008: 192)

49) 다음도 참고하라. “전통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성자’나 ‘왈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메디나의 무함마드의 묘소에서 행하는 신자들의 사자 숭배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함마드 출생일과 사망일에 무함마드 숭배를 합의(ijma)에 의해 인정하였다. 이븐 타이미야(Ibn Taymiyyah, A.D. 1263-1328)는 ‘예언자의 모스크에서 올린 한 번의 예배가 다른 곳에서 행한, 1,000번의 예배보다 나으리라’라고 하고, ‘예언자에게 인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이동주, 2017: 222)

을 그리는 것조차 존중해 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예언자 무함마드를 신성시해 달라는 말로 이해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절대자/신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인간 예언자라고 꾸란을 통해 무함마드 스스로 고백한-알라가 스스로 고백하도록 한-사람을 표현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 그 자체가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를 신성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를 실질적으로 신성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心證을 강화할 뿐이다.⁵⁰⁾ 참고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신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샤하다(무슬림 신앙고백)에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Simon Sebag Montefiore)는 초기 이슬람의 신앙고백인 샤하다(Shahada)에는 뒷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이 없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685년 이전에는 그러한 고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무슬림의 초기 신앙고백(샤하다, shahada)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685년까지는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다”라는 말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Montefiore, 2012: 307 각주).

몬티피오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든다. 꾸란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도임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무함마드는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 꾸 33:4상반절,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니라” 꾸 48:29상반절), 인간인 예언자 무함마드를 이슬람 절대자 알라의 신앙고백과 동일한 문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계전인 꾸란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인 것은 사실이다. 단지 고백을 동일 문장에서

50) 모임에서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신성 모독/우상화라고 했을 때, 나온 질문[반문]이다.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우상화다? 그렇기에 예언자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이슬람에서는 금기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왜 우상화가 아닌가?”. “평화의 종교라고 하면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렸다고 테러다. 이슬람이 평화다. 어불성설 아닌가?”. “예언자 무함마드가 인간이라면서 그리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그렸다고 해서 그 그림이 예언자 무함마드이겠는가? 예수의 그림이 예수가 아닌 것처럼 ...”; 참고로 과거(2018.07.11)에 워마드[극단적 형태의 페미니즘?!] 게시판에 훼손된 성체 사진이 올라오면서 천주교에서 ‘성체 훼손’ 논란이 있었다. 가톨릭의 교리[화체설]에 의하면 ‘성체=그리스도의 몸’이다. 가톨릭 미사 중에 사제는 축성문을 낭독함으로써 기적을 일으킨다.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enim corpus meum)라는 선언은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성체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는 물리적인 실력행사로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성체 훼손을 이유로 물리적 행사를 했다면 이 나라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신앙고백 안에 절대자 알라와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와의 (同時的) 고백은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를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숭배받을/신성화될 확률이 높아지게 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항상 우상화의 우려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 절대자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를 상대적으로 우상화하게 되면 무함마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유럽에서의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는 곧 신성모독에 가까운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더 민감하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 비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그러면 그럴수록 비이슬람 세계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평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Ⅲ 나아가는 말

본고는 왜 이슬람이 이 사회에서 혐오를 받게 되었는지에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논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이슬람혐오(Islamophobia)의 내부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먼저 비이슬람 세계가 세속국가(世俗國家)로 정교가 분리된 사회라는 점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世俗社會라는 現實의 認識不足). 이슬람은 정교일치를 추구하는 신정국가를 이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국가인 비이슬람 세계에서 꾸란의 가르침에 근거한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적용하려고 하기에 이슬람에 대해서 두려움만 쌓일 뿐이다. 샤리아가 적용되는 이슬람 세계에서 절도를 했다고 절단형을 하거나 동성애와 간음을 했다고 채찍질을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비이슬람 세계인 세속국가에서 배교(背敎)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 이해가 되지 않음을 곧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와 알라의 계전인 『꾸란』에 대한 오해(誤解)와 오용(誤用)이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발생케 한다는 것이다(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계전인 『꾸란』에 대한 誤解-誤用). 절대자 알라의 의지가 살람(平和/和平)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꾸란을 이해할 때에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콘텍스트 즉 당시 사회적 상황(情況/政況)에

서 이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자구적(字句的)으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꾸란이나 절대자 알라가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폭력적인 지하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슬람 지하디스트에 의해서 꾸란과 알라가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언급됨으로써 이슬람을 더욱 혐오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꾸란에서 폭력을 인정한다고, 절대자 알라가 파괴적인 행동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이슬람은 폭력적인 종교가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폭력적인 종교가 되고 그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상대적 신격화로 인해서 이슬람혐오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알라의 인간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한 相對的 神格化 傾向). 꾸란은 이슬람의 절대자 알라의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점을 예언자 무함마드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존경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시쳇말로 선을 넘어섬으로써 인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격화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비무슬림 세계에서의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에 대해서 과도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됨으로써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비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은 더욱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와 부정적인 시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인간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단지 그를 풍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발광을 하는겨? 여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풍자해도 그렇게 발광하지 않는데 말이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우 (2021). 『이슬람 다시보기 II: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을 기대하며』. 파주: 지식과감성.
- 강영안 (2009).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서울: IVP.
- 공재영 (2024). “중양아시아 사람들이 문명과 종교 발전에 미친 영향: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양아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17(1). 141-165.
- 권상우 (2021). “유학의 성인과 이슬람의 성인: 중국 이슬람의 聖人系譜와 聖人觀”. 『울곡학연구』. 44. 391-413.
- 김재희 (2020). “아랍시사만평에 나타난 유럽 내 이슬람포비아 현상 연구”. 『통합유럽연구』. 11(1). 123-152.
- 김정우 (2015). “성경 히브리어 ‘샬롬’(שלום)의 어휘”, 『신학지남』, 82(4). 7-34.

- 김학철 (2025). 『손으로 읽는 신약성서』. 서울: 포이에마.
- 박양운 (1999).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비교 종교 연구』. 가톨릭출판사.
- 박현도 (2017a). “하디스가 문제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집』. 1(1). 17-21.
- 박현도 (2017b). “서구의 이슬람 연구와 우리의 과제: 역사적 무함마드 연구”, 『영상문화』. 30. 27-46.
- 박현도 (2016). “샤리아의 과거와 현재: 전통 샤리아와 근대 이슬람법의 불일치”. 『인문사회 21』. 7(2). 631-643.
- 서정민 (2017). “쿠란 속 지하드의 역사적 변천과 활용”.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7(2). 1-30.
- 손주영 (2007). “이슬람 전통에서 말하는 같은 뿌리의 일신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7(1). 1-34.
- 손주영 (2005).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서울: (주)일조각.
- 신충훈 (2010). “구약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 샬롬(שלום)의 어휘 의미론적 분석”, 『기독교와 어문학』. 7(1). 181-198.
- 오성민 (2023).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 서울: (주)복있는사람.
- 원용국 (2002). “구약과 이슬람의 연구”. 『신학지평』. 15. 1-31.
- 이동주 (2017). 『이슬람의 왜곡된 진리』. 서울: CLC.
- 이봉석 (2023).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의 정교분리(laïcité)의 의미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7. 389-419.
- 이희수 (2008). “적대적 고정관념으로 왜곡된 서아시아-이슬람권: 서아시아-이슬람권”. 이옥순 외 6인 공저 (2008).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서울: 삼인. 189-240.
- 임병필 (2019). “코란과 하디스에 언급된 지하드의 의미”.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9(3). 1-28.
- 임병필 (2016). “현대아랍의 형법과 샤리아 절도 규범의 반영 및 적용”. 『아랍어와 아랍문학』. 20(4). 71-99.
- 임병필·김종도·안승훈·유왕종·김병호·이성수 공저 (2018). 『아랍과 이슬람』. 모시는사람들.
- 임재혁 (2010). “유토피아와 희망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이성과 신앙』. 42. 5-31.
- 장후세인 (2014). 『하디스 40선과 해설』. 파주: 젠나무민복스.
- 정수일 (2003). 『이슬람문명』. 초판5쇄. 서울: 창작과비평사.
- 정승원 (2021). “복음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안병무의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 이해”. 『성경과 신학』. 98. 1 - 32.
- 조희선 (2015). 『변화하는 무슬림 여성』. 세상출판사.
- 황태연 (2017). 『이슬람 이야기』. 고양: 좋은땅.

- Brechtken, Magnus (2020). DER WERT DER GESCHICHTE: Zehn Lektionen für die Gegenwart. Siedler Verlag. 강민경 역 (2024). 『역사의 가치』. 서울: 시공사.
- Brooks, Geraldine (1995). Nine Parts of Desire. 황성원 역 (2011). 『이슬람 여성의 숨겨진 욕망: 믿음에 갇힌 여자들』. 서울: 뜨인돌출판사.
- Darwish, N. (2008). Cruel and Usual Punishment. 장성일 역 (2014).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 서울: 4HIM.
- Hillenbrand, Carole (2015). Islam: A New Historical Introduction. London: Thames & Hudson. 공지민 역 (2016). 『이슬람 이야기』. 시그마북스.
- Jouary, Jean-Paul (2021). Vivre et penser dans l'incertitude. Paris: Editions Flammarion. 배정은 역 (2024). 『불안사회 생존철학』. 성남: 상상스퀘어.
- Madden, Thomas F. (2005). The New Concise History of the Crusades. 권영주 역 (2010). 『십자군: 기사의 영웅들의 장대한 로망스』. 서울: 루비박스.
- Mallach, Allan (2023). Smaller Cities in a Shrinking World. 김현정 역 (2024). 『축소된 세계』. 서울: 사이.
- Montefiore, Simon Sebag (2011). Jerusalem: The Biography. 유달승 역 (2012). 『예루살렘 전기: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땅의 역사』. 서울: 시공사.
- Shiono, Nanami (1996). Roma-Jin No Monogatari VII: Akmei Takaki Kouteitachi. Shincho-Sha. 김석희 역 (2019). 『로마인 이야기 7: 악명높은 황제들』. 파주: 한길사.
- Wright, Christopher J. H. (2009). The God I Don't Understand. 전성민 역 (2013).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이슬람 혐오(Islamophobia) 원인에 대한 소고	발표자	강상우
		논찬자 (소속)	양성만 (우석대/명예교수)

이 글은 이슬람국가 밖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혐오 현상의 원인을 (서술적) 다원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글이다. 발표자는 세 가지를 지적한다.

(1) 이슬람 종교의 가르침을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국가 밖에서, 비이슬람 세속국가에서조차 그 이념을 무리하게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 꾸란에 따르면 알라 신의 근본적 속성이 평화인데, 지하드(성전, 聖戰)를 허용하는 구절들을 문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해석해서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3) 무함마드는 꾸란에서도 위대한 신의 사도이며 예언자라고 높이면서도 인간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는데도 지나치게 높여 신격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함마드에 대한 비판적 풍자를 신성모독으로 여겨 세속국가에서 작가와 관련자들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일이 일어난다.

발표자는 서술적으로 정리하였다고 하지만 위의 세 가지 잘못 때문에 혐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혐오의 해결책은 이런 잘못들을 시정하는 데 있다고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논찬자는 이 글을 재미 있게 읽었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다. 이슬람 혐오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들, 이슬람 경전과 권위 서적들, 꾸란, 무함마드의 언행을 모은 하디스(다수), 이슬람 학자들의 전원합의인 이즈마, 추론의 산물인 끼아스, 신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샤리아 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발표자는 꾸란을 상당히 자유롭게 읽고 인용한다. 이미 『이슬람 다시 보기』 I, II권을 저술 출판한 이슬람 연구가이다. 이슬람교와 그 문화, 연구에 친숙한 것으로 보인다.

논찬자가 이 글을 흥미롭게, 유용하게 읽긴 했지만 논찬을 말지 않았다면 이 글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와 비교해 보자면, 평소에 이슬람교나 문화, 또 혐오 현상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논찬문은,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집에서 다투는 것을 보고 잠시 구경하면서 관전평을 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을 고백한다.

발표자가 이 글에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찬자로서는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다. 그런데 이 글이 누구를 향해, 무슨 이야기를,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슬람 교도? 비이슬람교도들인 일반인들? 아니면 기독교인들, 또는 이슬람 학자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위에 정리한 대로이다. 이 주제들이 생산적으로 다루어지려면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논지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의 원칙을 무리하고 세속국가에서조차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토론은 발표자와 이슬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이슬람 지도자들의 이해, 주장, 답변이 무엇인지가 여기 대략적으로도 제시되고, 이에 대한 발표자의 비판이 제시되는 식으로 전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둘째 주제는 꾸란에 대한 해석,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슬람 신학자들과의

토론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지하드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를 인용하고 있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지하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논의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제한점은 발표자가 선제적으로 고백한 내용이다.)

혐오의 주제가 서술적인 논의에서 끝날 수는 없다. 혐오는 해소되어야 한다. 이슬람 혐오의 주된 원인이 이슬람교 자체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반대편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원인을 한편에서만 찾는다면 그 논의 자체에 혹시 혐오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혐의를 살 수 있다.

사실 발표자의 더 깊은 동기는 기독교 혐오 현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혐오 현상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혐오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글이 이 방향으로 발전되었다면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글을 쓰는 스타일은 좀 더 논문의 형식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